한화 정은원 극심한 부진
대표팀 최종엔트리 '불안'

정은원

한화 이글스 2루수 정은원(19)의 부진이 심각하다. 후반기 타율은 고작 2할1푼대다. 야구국가대표팀 예비엔트리 발탁을 계기 삼아 분발이 절실하다.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에 출전할 야구대표팀 예비엔트리 60명이 발표된 3일, 정은원은 대전 KIA 타이거즈전에서 4타수 무안타 2삼진에 그쳤다. 5-6으로 뒤진 6회말 무사 1루선 보내기번트 실패에 이어 헛스윙 삼진을 당한 뒤 타석을 벗어나며 괴성을 질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극심한 부진에 스스로도 화를 삭이지 못한 것이다.

전반기 94경기에선 타율 0.279에 5홈런, 42타점이었다. 후반기 들어서는 딴판이다. 31경기에서 타율 0.218, 1홈런, 11타점이다. 전 경기 출장에 따른 체력부담 탓인지 수비에서도 휘청거리고 있다. 전반기 9개, 후반기 4개다. 경기수를 고려하면 후반기 실책증가가 눈에 띈다.

야구대표팀 예비엔트리에 포함된 한화 소속 선수는 정은원을 비롯해 투수 박상원, 포수 최재훈 등 고작 3명이다. 10개 구단을 통틀어 최소다. 전반적인 팀 성적 하락의 결과다. 국가대표감이 드문 한화에서 야수로는 유일하게 예비엔트리에 발탁된 데서 정은원의 팀 내 비중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대로는 10월초 발표될 28명 최종엔트리 진입을 자신할 수 없다. 올림픽 메달을 따 병역혜택을 얻는 것은 둘째 치고 국가대표 경험은 한화 세대교체의 주역이어야 할 정은원의 성장에 큰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박민우(NC 다이노스), 김상수(삼성 라이온즈), 안치홍(KIA) 등 예비엔트리 내의 쟁쟁한 2루수들을 제치고 최종엔트리에 들려면 잔여경기에서 반등이 꼭 필요한 정은원이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2019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 슈퍼라운드 돌입 | 오늘 대만전·6일 일본전·7일 미국전

우승 가는 길, 日 사사키·美 아벨 넘어라

한일전 사사키 등판 여부 최대 관심
장재영 "일본전은 질 수 없어" 각오
대만·미국도 만만치 않은 전력 자랑

한국 청소년야구대표팀은 5일부터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2019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슈퍼라운드에 돌입한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 대만 등 강팀을 차례로 상대해야 한다. 이번 대회에 타자로 4경기, 투수로 1게임에 나서 잠재력을 뽐내고 있는 장재영의 활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장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한국 청소년야구대표팀이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2019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18세 이하) 조별예선 5경기를 4승1패로 순조롭게 마쳤다. 다음 단계는 5일부터 시작하는 슈퍼라운드다. 영원한 맞수 일본을 비롯해 미국, 대만 등 야구 강국들과 승부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정이다. 조별예선과 견줘 긴장감부터 다르다.

한국은 조별예선을 A조 1위로 마쳤다. A조에 속한 팀 가운데 슈퍼라운드에 진출한 캐나다, 호주와 맞대결한 성적이 그대로 유지되며(1승1패), 조별예선에서 맞붙지 않았던 B조 3개 팀과 대결하는 방식이다. 3일 호주가 캐나다를 꺾는 바람에 조 3위 호주가 2전승, 한국이 1승1패, 캐나다가 2패의 성적을 안고 슈퍼라운드로 향한다.

공교롭게도 B조의 일본과 미국, 대만이 슈퍼라운드에 진출하면서 가장 강력한 상대와 슈퍼라운드에서 맞붙게 됐다. 5일 대만, 6일 일본, 7일 미국을 차례로 만난다. 특히 일본은 최고구속 163km의 강속구를 지닌 사사키 로키(이와테현 오후나토고) 등 조별예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투수들이 슈퍼라운드에 나설 예정이라 그만큼 긴장감도 커졌다.

●최대 관심사 한일전, 어떻게 풀어갈까

이번 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매치업은 바로 6일 오후 6시 열리는 한일전이다. 현장을 찾은 일본 취재진도 3일 한국-중국전이 끝난 뒤 대표팀 이성열 감독과 장재영(덕수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장재영은 "일본인데 질 수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B조 예선에서 4승1패를 기록한 일본은 쉽지 않은 상대다. 사사키와 오쿠가와 야스노부(이시카와현 세이료고) 등 조별예선에 나서지 않았던 에이스 두 명이 모두 출격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니시 준야, 미야기 히로야 등 수준급 투수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일본 취재진이 일본프로야구(NPB) 신인드래프트 1순위 지명을 예상한 4번타자 이시카와 다카야는 조별예선 5경기에서 14타수7안타(타율 0.500), 1홈런, 8타점, 출루율 0.632의 맹타를 휘둘렀다. 오른손 중지에 물집이 잡혀 조별예선에 등판하지 않았던 사사키는 불펜피칭을 통해 몸 상태를 끌어올리며 "좋아지고 있다. 슈퍼라운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때는 등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조별예선 3경기에 등판해 2승을 챙긴 니시는 최고구속 153km의 빠른 공과 스플리터가 주무기인 투수로 사사키와 오쿠가와 못지않게 위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격에서도 2개의 홈런을 기록한 터라 투타 양면에서 경계대상이다.

●미국과 대만, 절대 방심할 수 없다

야구 종주국이자 지난 4차례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한 미국도 전체적인 전력이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이저리그(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이 고교 유망주 2위로 선정한 에이스 믹 아벨과 3일 스페인전에서 최고구속 98마일(약 158km)을 찍은 알레한드로 로사리오 등을 앞세운 마운드는 공포의 대상이다. 아벨은 최고구속 150km대 중반의 빠른 공에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며 제구력도 뛰어나 경계대상 1호로 손꼽힌다. MLB닷컴 선정 고교 유망주 7위 타일러 소더스트롬과 14위 로버트 하셀이 버티는 타선도 위력적이다. 한국은 7일 낮 12시 미국과 맞대결한다.

당장 5일 낮 12시 맞대결이 예정된 대만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조별예선 5경기에서 28득점, 14실점(미국전 8실점)을 기록한 안정적인 밸런스에 2일 일본을 3-1로 꺾으며(강우콜드) 자신감도 크게 상승했다. 마운드에선 조별예선에서 나란히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린위민과 전포위, 타선에선 6타점 기록한 로위지에가 전력의 핵심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일정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일전이다.

기장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쇼케이스 만점' 이민호 완벽투에 웃는 LG

2일 니카라과전서 5이닝 노히트
차명석 단장 "1차지명 선택 옳아"

강력한 구위와 안정된 제구력. 투수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LG 트윈스의 2020시즌 신인 1차지명자 이민호(18·휘문고)에게 이만한 쇼케이스는 없었다. 8월 30일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진행 중인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2019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18세 이하)가 바로 그 무대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시종일관 씩씩한 표정으로 마운드에서 버틴 멘탈 또한 인정받을 만했다. 2일 니카라과전에서 5이닝 동안 볼넷 1개만을 허용(5삼진)하며 노히트 피칭을 선보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강점을 모두 이끌어냈다는 점이 더욱 긍정적이다.

이민호는 올해 서울권 3개팀(LG~키움 히어로즈~두산 베어스) 가운데 1순위 지명권을 가진 LG의 선택을 받았다. LG가 고교 최고의 타자로 손꼽히는 박

이민호

주홍(휘문고·키움 1차 지명)과 고민 끝에 이민호를 지명한 이유는 확실했다. 최고구속 152km의 빠른 공을 지닌 데다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는 능력이 뛰어나고, 제구력도 괜찮았다. 실제로 이민호는 올 시즌 13경기에서 50.2이닝을 소화하며 삼진(70개)/볼넷(10개) 비율이 7이었고, 이닝당 출루허용(WHIP)도 0.88에 불과했다. 그만큼 마운드에서 안정감을 보여줬다는 의미다.

국제대회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 타자 무릎 높이에 형성된 로케이션이 일품이었고, 많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포심패스트볼(포심)이 조금씩 스트라이크존을 벗어나자 커브로 카운트를 잡는 임기응변도 돋보였다. 이민호의 투구를 지켜보던 일본의 프리랜서 기자 오시마 히로시도 "LG에 지명된 그 투수 아니냐. 공이 정말 좋다"고 감탄했다.

LG 차명석 단장도 2일 이민호의 투구를 지켜봤다. 차 단장은 "한 경기로 판단하긴 이르지만 좋은 투구를 했다"며 "우리는 (이민호가) 아직 성장판이 닫히지 않아 완벽하게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빠른 공을 던진다는 점과 유연성에 주목했다. 더 좋은 선수로 만들어야 한다. 좋은 선택을 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기장 | 강산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3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타율	평균자책점	홈승률	득점	실점	홈런	도루	실책
1	SK	128	82	45	1	0.646	-	2승	0.267	3.42	0.667	607	479	100	106	77
2	두산	126	77	49	0	0.611	4.5	1패	0.276	3.51	0.651	643	483	79	84	74
3	키움	130	77	52	1	0.597	6.0	1승	0.285	3.78	0.642	726	538	107	98	91
4	LG	125	68	56	1	0.548	12.5	1승	0.268	3.98	0.581	574	567	80	90	79
5	NC	125	62	62	1	0.500	18.5	1패	0.278	4.21	0.571	589	577	108	69	87
6	KT	128	62	64	2	0.492	19.5	2패	0.276	4.42	0.576	577	605	88	87	89
7	KIA	126	55	69	2	0.444	25.5	4승	0.267	4.70	0.530	552	638	70	79	85
8	삼성	123	51	71	1	0.418	28.5	1승	0.259	4.68	0.508	540	628	103	94	86
9	한화	125	47	78	0	0.376	34.0	1패	0.254	5.06	0.426	536	672	80	96	97
10	롯데	126	44	79	3	0.358	36.0	5패	0.254	5.02	0.450	535	692	83	62	102

•Before & After 7-Game

팀	27화	28수	29목	30금	31토	1일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10화	11수
SK	두	두	삼	삼	LG	LG	NC	*NC	*두	*두	kt	kt	*키	*키
두산	S	S	kt	kt	삼	삼	키	*키	S	S	LG	LG	*NC	*NC
한화	키	키	☂	LG	kt	kt	K	*K	NC	NC	*롯	*롯	*LG	*LG
키움	한	한	롯	롯	NC	NC	두	두	*삼	*삼	K	K	S	S
KIA	삼	삼	NC	NC	롯	롯	한	한	kt	kt	*키	*키	롯	롯
삼성	K	K	S	S	두	두	롯	롯	키	키	*NC	*NC	*kt	*kt
롯데	LG	LG	키	키	K	K	삼	*삼	LG	LG	한	한	*K	*K
LG	롯	롯	☂	한	S	S	kt	*롯	*롯	*롯	*두	*두	한	한
KT	NC	NC	두	두	한	한	LG	*LG	*K	*K	*S	*S	삼	삼
NC	kt	kt	K	K	키	키	S	S	*한	*한	삼	삼	두	두

○=승 ●=패 □=무 *=홈경기

※ '프로야구 기록실'이 신문제작 시간관계로 일부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퓨처스리그 〈4일〉

•경기결과

	팀	1	2	3	4	5	6	7	8	9	R	
상동	상무	0	0	0	0	0	1	0	0	1	2	2시간47분
	롯데	0	0	0	0	6	0	0	2	X	8	

[승] 장국헌 [패] 김유신

메이저리그 〈4일〉

•아메리칸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뉴욕Y	91	49	1	미네소타	86	52	1	휴스턴	90	50
2	탬파베이	82	59	2	클리블랜드	80	59	2	오클랜드	79	58
3	보스턴	74	64	3	시카고W	61	77	3	텍사스	68	72
4	토론토	55	85	4	캔자스시티	50	89	4	LAA	65	74
5	볼티모어	46	93	5	디트로이트	40	96	5	시애틀	58	82

•내셔널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애틀랜타	86	54	1	St.루이스	78	60	1	LAD	91	50
2	워싱턴	78	59	2	시카고C	75	63	2	애리조나	72	67
3	필라델피아	72	65	3	밀워키	71	67	3	샌프란시스코	66	72
4	뉴욕M	70	68	4	신시내티	64	75	4	샌디에이고	64	74
5	마이애미	49	88	5	피츠버그	60	78	5	콜로라도	59	81

•경기결과

오클랜드	7 - 5	LAA	워싱턴	11 - 10	뉴욕M
LAD	5 - 3	콜로라도	시카고C	6 - 1	시애틀
마이애미	5 - 4 〈연장10회〉	피츠버그	애틀랜타	7 - 2	토론토
볼티모어	4 - 2 〈DH1〉	탬파베이	탬파베이	2 - 0 〈DH2〉	볼티모어
시카고W	6 - 5	클리블랜드	캔자스시티	6 - 5	디트로이트
밀워키	4 - 2	휴스턴	미네소타	6 - 5	보스턴
필라델피아	6 - 2	신시내티	애리조나	2 - 1	샌디에이고
St.루이스	1 - 0	샌프란시스코	뉴욕Y	10 - 1	텍사스

아마추어 경기결과 〈4일〉

배구 ●제 30회 CBS배 전국 남여 중고 배구대회(옥천군 실내체육관) •남자 고등부 결승전=속초고 3-0 수성고 •남자 중등부 결승전=연현중 2-1 본오중 •여자 중등부 결승전=원곡중 2-0 중앙여중

핸드볼 ●2019 핸드볼 코리아 전국 중고 선수권대회(김천) •남자 고등부 A조=대성고 30-20 고대부고, 조대부고 27-26 낙동고 •남자 고등부 B조=경원고 28-23 삼척고 •여자 고등부 예선전=조대여고 26-16 정신여고 •남자 중등부 예선전=태백중 27-19 천안동중, 선산중 25-19 글꽃중, 이리중 38-21 조대부중 •여자 중등부 예선전=용산중 18-11 조대여중, 동방여중 13-9 양덕여중

사격 ●제 1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창원) •공기권총 남자 고등부 개인전=① 김경민(부산체고), ② 박건희(전북체고), ③ 허태민(안남고) •공기권총 여자 고등부 개인전=① 추가은(경남체고), ② 김혜란(동백고), ③ 양소희(부산영상예고) •공기권총 남자 고등부 단체전=① 안남고, ② 포항고, ③ 서울체고 •공기권총 여자 고등부 단체전=① 부산영상예고, ② 경남체고, ③ 서산여고 •50m 3자세 남자 고등부 개인전=① 정승우(인천체고), ② 김지우(보은고), ③ 한종호(서울체고) •50m 3자세 남자 고등부 단체전=① 오산고, ② 인천체고, ③ 보은고

경기 예고

프로야구 〈5일〉

•2019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롯데 (-)	〈잠실〉	LG (-)	두산 (-)	〈인천〉	SK (-)
오후6시30분, SBS스포츠, KNN-R			오후6시30분, SPOTV2		
한화 (-)	〈창원〉	NC (-)	KIA (-)	〈수원〉	KT (-)
오후6시30분, SPOTV, KNN-R, 경남MBC-R			오후6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삼성 (-)	〈고척〉	키움 (-)			
오후6시30분, KBSN스포츠, 대구방송-R					

아마추어 경기예고 〈5일〉

야구 ●제 29회 WBSC 기장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대회(부산) ●2019 KUSF 대학야구 U리그 왕중왕전(목동,오전9시)

농구 ●2019 세계 남자 농구월드컵(중국)

배구 ●2019 대학배구리그(경희대,오후3시) •남자부=경희대-성균관대

테니스 ●2019년 제 2차 ITF 영월 국제 여자 테니스투어대회(강원도 영월스포츠파크)

배드민턴 ●2019 전국 가을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충북 제천실내체육관,오전9시)

핸드볼 ●2019 핸드볼 코리아 전국 중고 선수권대회(김천,오전11시)

아이스하키 ●2019 대학 아이스하키 U-리그(목동실내,오후6시)

탁구 ●2019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몽골 울란바토르)

검도 ●제 16회 추계 전국 실업검도대회(전남 무안스포츠파크,오후1시)

양궁 ●제 51회 전국 남여 양궁종합선수권대회(예천 진호국제양궁장,오전9시30분)

오늘의 토토 〈5일〉

•야구토토 스페셜 98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09.05 (목) 18:30	LG vs 롯데	서울잠실야구장
2	09.05 (목) 18:30	KT vs KIA	수원케이티위즈파크
3	09.05 (목) 18:30	키움 vs 삼성	고척스카이돔

•축구토토 매치 12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09.05 (목) 22:30	한국 vs 조지아	이스탄불(터키)